

2005 축산물브랜드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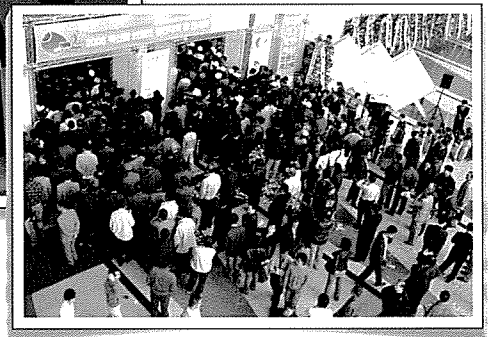
‘횡성한우’의 즐거운 “음메”, ‘포크밸리’의 신나는 ‘꿀꿀’

농협이 주최한 ‘2005 축산물브랜드전’이 지난 10월 28일부터 30일까지 서울 삼성동 코엑스 인도양홀에서 열렸다. 국내 107개 우수 브랜드 축산물이 총 출동, 맛과 품질을 겨룬 이번 브랜드전에서는 축산물등급판정소가 선보인 ‘쇠고기 이력 추적시스템’이 눈길을 끄는가 하면, 개막행사로 치러진 백두산 천지물로 끓인 2005인분의 설령탕 급식도 화제가 되었다. 농협중앙회 축산유통부 브랜드팀이 집계한 이번 전시회의 참관인원은 3일동안 9만2,00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28일 부대행사로 열린 2005축산물브랜드경진대회에서는 모두 8점의 종합시상과 4점의 부문 시상이 있었는데 한우부문 대상(국무총리상)은 횡성축협(조합장 고명재)의 ‘횡성한우’가 차지했고, 양돈부문 대상(국무총리상)은 부경양돈농협(조합장 이재식)의 ‘포크밸리’가 영예를 안았다.



▲ 횡성축협과 부경양돈조합이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



▲ 첫날부터 몰려든 인파~*



▲ 쇠고기이력추적 시스템을 선보인 축산물등급판정소



▲ 테이프커팅을 시작으로 입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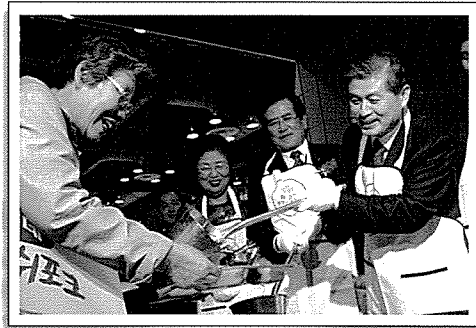
▲ 우리 것이 좋은 것, 우리 한우의 힘!!



▲ 전국에서 올라온 브랜드 열전



▲ 브랜드경진대회에 참석한 내빈들.



▲ 관람객에게 설령탕을 배식하는 황우석 교수.



▲ "앗따, 그 삼겹살 맛나게 생겼네"



▲ 먹음직스러운 고기요리들.